

화랑의 문예미학을 통해본 혜성가와 모죽지랑가

The Aesthetics of the Literature of Hwa-Rang in Hyesung-Ga and Mojukjirang-Ga

저자 (Authors)	류해춘 Ryoo, Hae-choon
출처 (Source)	국제언어문학 ,(5), 2002.06, 17-37(21 pages) International language and literature ,(5), 2002.06, 17-37(21 pages)
발행처 (Publisher)	국제언어문학회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Language and Literature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356143
APA Style	류해춘 (2002). 화랑의 문예미학을 통해본 혜성가와 모죽지랑가. 국제언어문학(5), 17-37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6/15 10:07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화랑의 문예미학을 통해본 <혜성가>와 <모죽지랑가>

류 해 춘*

〈目次〉

- I. 서론
- II. 화랑의 문예미학
 - 1) 풍류와 유람
 - 2) 실천과 찬양
- III. 관련 향가의 분석
 - 1) 혜성가
 - 2) 모죽지랑가
- IV. 결론

I. 서론

향가를 일컬어 화랑의 문학이라고도 한다. 향가가 화랑의 문학이라면, 향가와 화랑은 어떤 관계를 지니고 있을까? 향가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향가의 본질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이 질문을 간략하게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최근 국문학계에서는 향가를 화랑집단과 긴밀하게 연결시켜 이해하려는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¹⁾ 이러한 연구는 기존의 불교적 관점²⁾ 혹은 주술적 관점³⁾ 그리고 문학사회학적 관점⁴⁾에서 이해해 오던 향가

* 성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김승환, 『한국상고문학론』, 새문사, 1987.

김지용, “향가와 화랑도사상”, 『향가문학연구』, 일지사, 1993.

김학성, 『한국고시가의 거시적 탐구』, 집문당, 1997.

유효석, “풍월계 향가의 장르성격 연구”, 성균관대(박사논문), 1993.

허남춘, “화랑도의 풍류와 향가”, 『신라가요의 기반과 작품의 이해』, 보고서, 1998.

작품을 화랑집단의 고유 신앙 혹은 화랑도와 관련지어 이해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라 할 수 있다.

이들 향가에 나타난 화랑의 문예미학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향가의 주도적 담당층인 화랑의 사상과 그들의 세계관을 이해하여야 한다. 신라의 진흥왕은 현실의 신분적인 특권과 제약을 극복하고 삼국통일이라는 숭고한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신라인들의 여망에 부흥하기 위해 화랑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공식적으로 정착시켰다고 할 수 있다. 화랑은 고구려, 백제와 정복 전쟁을 치르는 치열한 삶을 살면서도 천명에 순응하며 풍류를 즐기는 숭고한 정신을 가졌고, 현재의 고통스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화랑의 덕목을 실천한 훌륭한 인물을 찬양하는 우아한 정신을 가졌다. 향가의 작품 속에는 화랑들이 유람하며 풍류를 즐기고 덕목을 실천한 훌륭한 인물을 찬양하는 숭고하고 우아한 화랑들의 문예미학을 노래하고 있다. 이러한 화랑의 문예미학을 우리들은 현존하는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나타난 화랑관련 기록을 통해 찾을 수 있다. 이 기록을 바탕으로 향가에 나타난 화랑의 문예미학을 한꺼번에 고찰하는 것보다는 화랑의 정착기인 삼국통일 이전의 화랑을 소재로 하고 있는 향가와 화랑의 변화기인 삼국통일 이후의 화랑을 소재로 하고 있는 향가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삼국유사』와 『삼국사기』 등의 화랑에 관련된 기록을 바탕으로 신라 향가의 작품 중에서 삼국통일기 이전의 花郎이나 國仙을 소재로 하고 있는 <혜성가>와 <모죽지랑가>⁵⁾를 중심으로 그 문예미학을 살펴보

-
- 2) 김동욱, 『한국가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61.
 김운학, 『신라불교문학연구』, 현암사, 1977.
 김종우, 『향가문학연구』, 이우출판사, 1980.
 김승찬, 『신라향가연구』, 제일문화사, 1987.
 - 3) 임기중, 『신라가요와 기술물의 연구』, 이우출판사, 1981.
 김열규, “향가의 문학적 연구 일반”, 『향가의 어문학적 연구』,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1972.
 - 4) 윤영옥, 『신라시가의 연구』, 형설출판사, 1981.
 최진원, 『국문학과 자연』, 성균관대출판부, 1981.
 박노준, 『신라가요의 연구』, 열화당, 1982.
 최철, 『향가의 문학적 해석』, 연세대출판부, 1990.
 - 5) 김학성, 앞의 책, 1997, 참조. 후대인 경덕왕 때에 창작된 화랑과 관련된 향가의

고자 한다.

II. 화랑의 문예미학

화랑은 제의를 관장하던 집단에서 유래한 源花나 仙徒를 그 선행 형태로 하고 있으며, 진흥왕 37년(576)에 제도적으로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진흥왕이 화랑도를 정착시킨 주된 이유는 국력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국가적 목적을 달성시키는 데 필요한 인재를 교육하기 위해 채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여러 문헌에 나타난 화랑과 관련된 용어로는 花郎, 仙徒, 源花, 風月道, 風流道, 風月之廷, 護國仙, 雲上人, 國仙, 風月主, 花主, 左三部花郎, 右三部花郎, 前三部花郎, 彌勒仙花, 朝廷花主, 仙郎 등이 있다.⁶⁾ 이들 용어는 폭넓은 의미에서 모두 화랑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관련된 내용은 화랑의 문예미학을 유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화랑의 문예미학은 지금까지 주로 奉神, 道義, 歌樂, 山水⁷⁾ 등을 통해서 논의되고 있다. 화랑은 하늘의 天神, 龍神, 山神 등을 섬기며, 道義를 연마하고, 歌樂을 즐기며, 山水를 유람하면서 풍류를 즐기고 人天咸悅(龍天歡悅), 民物安寧, 接化群生을 목표로 두었으니, 이는 화랑도 문예의 사상이고 그 정신이라 할 수 있다. 또 화랑의 문예미학은 향가를 비롯한 당시의 문학작품에 수용되어 있는 三美(摛謙, 衣儉易, 不用其威)와 世俗五戒(事君以忠, 事親以孝, 交友以信, 臨戰無退, 殺生有擇) 등을 통해서도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화랑도의 문예미학을 화랑들이 명산대천을 유람하면서 함양했던 풍류정신과 화랑과 관련된 서적에 담겨있는 실천덕목을 통해 화랑을 찬양한 내용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풍류와 유람

작품으로는 월명사와 충담사 등이 지은 <도술가>, <제망매가>, <안민가>, <찬기과랑가> 등의 연구는 다음 기회에 살펴보고자 한다.

6) 조법중, “화랑관련 용어의 검토”, 『화랑문화의 신연구』, 경상북도, 1995, 참조.

7) 김주한, “화랑의 문예미학”, 경상북도, 앞의 책, 1995, 참조.

화랑과 관련된 기록에는 풍류와 풍월도란 단어가 함께 들어 있어 주목을 요한다. 그런데 『삼국사기』에서는 풍류라 하고, 『삼국유사』에서는 풍월도라 하고 있다.

최치원의 『난랑비』 서문에 이르기를 ‘우리 나라에는 현묘한 도가 있었으니 일러서 풍류라 하였다’고 하였다. 이 교를 창설한 내력은 선사에 상세히 밝혀져 있으니 사실은 삼교(儒, 佛, 仙)를 포함하여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⁸⁾

여러 해 지나서 왕이 나라를 일으키고자 하면 풍월도를 먼저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시 훌륭한 집안의 덕행있는 남자를 뽑도록 하여 화랑으로 이름을 바꾸고 처음으로 설원랑을 국선으로 받들도록 하니 이것이 화랑국선의 시작이다.⁹⁾

위의 인용문은 화랑의 시작과 풍류의 내용을 전하는 기본적인 사료라 할 수 있다. 서로가 표현한 방법은 다르지만 화랑도와 풍월도의 뜻은 풍류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나라의 인재 집단을 화랑도나 풍월도라 하고 있으며, 이들이 나라를 일으킬 힘을 풍류나 풍월의 정신을 함양하는 데서 찾으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등장한 풍류와 풍월의 정신은 화랑과 국선의 사상이며 곧바로 나라를 흥하게 할 사상이었으며 화랑의 문예미학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화랑들이 명산대천(三山, 五嶽 등)을 유람하면서 표출한 화랑도의 풍류정신을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화랑들이 자주 遊娛山水한 동해안 지역에는 지금도 많은 화랑의 유적지가 남아 있다. 동해안의 총석정, 삼일포, 영랑호, 경포대, 한송정, 월송정 등은 모두 四仙, 즉 述郎, 南郎, 永郎, 安詳¹⁰⁾의 遊娛地로서 풍류도장으로 남아 있다.¹¹⁾ 『삼국사기』와 『고려사』에는

8) 崔致遠撰, 鸞郎碑序文, 國有玄妙之道曰風流, 設教之源, 備祥仙史, 實乃包含三教接化群生. (『삼국사기』권4, 진흥왕 37년조.)
 9) 累年, 王又念欲興邦國, 須先風月道, 更下令選良家男子有德行者, 改爲花郎, 始奉薛原郎爲國仙, 此花郎國仙之始.(『三國遺事』卷3, 彌勒仙花 未尸郎 眞慈師)
 10) 叢石亭, …… , 新羅述郎南郎永郎安詳, 遊賞于此, 號稱四仙峰. (『東國輿地勝覽』卷

화랑들이 명산대천을 찾아다니면서 연마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름을 화랑이라 불러서 이를 받들었다. 화랑도의 무리가 구름처럼 모여들어 혹은 도의로써 서로 연마하고, 혹은 노래와 음악으로 서로 즐기며, 산수를 즐겨 찾아다니며 유람하되 그들의 발길이 안 닿은 곳이 없었다. 이로 인하여 그 인품이 바르고 바르지 못한 것을 알게 되어 그 중에 선량한 인물을 택하여 조정에 추천하였다. 그러므로 김대문의 『화랑세기』에 말하기를 ‘어진 재상과 충성스러운 신하가 여기로부터 나오고 좋은 장수와 날랜 군사가 이로부터 생긴다’고 하였다.¹²⁾

옛날 신라에 선풍이 크게 행하여져 이로 말미암아 용과 하늘이 기뻐하고, 백성과 사물이 편안하여, 할아버지 임금 이래로 그 풍속이 오랫동안 숭상되었다. 근래의 두 서울의 팔관회가 날이 갈수록 옛날의 격식이 감해지고, 그 유풍이 점점 쇠퇴해갔다. 지금의 팔관회는 양반의 가산이 풍족한 사람을 미리 선발하여 선가로 정하여 두었다. 옛날의 풍속에 의거하여 행하니 사람과 하늘이 모두 기뻐함에 이르렀다.¹³⁾

위의 두 예문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화랑들이 명산대천을 찾아다니는 것은 도의를 닦고 가악을 배우며 山神, 龍神, 天神 등을 섬기며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화랑들이 놀았던 지역의 암각화에는 人面相과 同心圓 등이 나타나 있다. 이는 화랑도들이 산신과 용신을 숭상하고 천신을 믿는 모습을 보여주는 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또 화랑들이 동해안을 유오할 때 석굴사원을 경영하여 彌勒에게 예배하기도 하였고, 煎茶

45, 通川郡 樓亭條

11) 이은창, “신라 화랑유적과 화랑도 사상”, 경상북도, 앞의 책, 1995.

12) 名花郎以奉之, 徒衆雲集, 或相磨以道義, 或相悅以歌樂, 遊娛山水, 無遠不至. 因此知其人邪正, 擇其善者, 薦之於朝. 故金大問花郎世紀曰, 賢佐忠臣, 從此而秀, 良將勇卒, 由是而生. (『三國史記』卷4, 眞興王 37年 春條.)

13) 昔新羅仙風大行, 由是龍天歡悅, 民物安寧, 故祖宗以來, 崇尚其風久矣. 近來兩京八關之會, 日減舊格, 遺風潮漸衰. 自今八關會, 預擇兩班家產饒足者, 定爲仙家. 衣行古風, 致使人天咸悅. (『高麗史』卷18, 「世家」18, 毅宗22年.)

具를 구비하기도 하였다. 煎茶로서 미륵에게 尊饗하는 의식은 동해안에 있는 사선의 유오지가 미륵신앙과 전다존향의 화랑도장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화랑도가 찾은 명산대천은 도교적인 국선의 풍류도장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불교적인 미륵선화의 전다도장이라고 할 수 있다.

화랑들이 명산대천을 찾아 풍류와 유람을 즐긴 이유는 신라의 전통사상인 山神과 龍神 그리고 天神을 신봉하고 유, 불, 선 3교의 교리를 익혀서 인간을 교화하는 화랑도의 정신을 맹세하고 다짐하는 것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화랑들은 명산대천을 遊娛하면서 歌樂을 즐기고 道義를 서로 갈고 닦으며 지냈고, 화랑들이 풍류와 가악을 즐길 때 자연스럽게 향가도 함께 불렀을 것이다. 화랑의 문예미학이 되는 화랑의 풍류와 유람의 정신은 <혜성가>의 세 화랑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실천과 찬양

화랑도 정신에는 자연발생적이거나 그 시대 신라인의 생활양식, 도의정신 또는 국가이념 같은 것이 집약적으로 표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각 문헌에 담겨있는 화랑이 직접 실천해야 할 덕목을 통해서 나타난 화랑의 문예미학을 살펴보기로 한다. 理想的인 화랑은 “① 어진 재상과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는 것이고, 훌륭한 장수와 용감한 병졸이 되는 것¹⁴⁾이며, ② 공손하고 검소하며 힘을 함부로 쓰지 않는 三美¹⁵⁾를 갖추어야 하고, ③ 忠節, 孝行, 信友, 勇戰, 仁慈 등 五戒¹⁶⁾를 갖추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아름다운 덕목을 실천한 화랑은 칭송과 찬양을 받아 그 노래가 향가로 남아 있어 현재에 전해지기도 한다.

①에 나타난 어진 재상과 충신은 국가의 정치를 담당하는 인재들이고, 홀

14) 賢佐忠臣, 從此而秀, 良將勇卒, 由是而生. (『三國史記』卷4, 眞興王 37年 春條.)

15) 四十八, 景文大王, 王諱膺廉, 年十八爲國仙, 至於弱冠. 憲安大王召郎, 宴於殿中問曰, 郎爲國仙, 優遊四方, 見何異事. 郎曰, 臣見有美行者三. 王曰, 請聞其說. 郎曰, 有人爲人上者, 而撝謙坐於人下, 其一也. 有人豪富, 而衣儉易, 其二也. 有人本貴勢, 而不用其威者, 三也.(『三國遺事』卷二, 景文王條.)

16) 今有世俗五戒, 一曰事君以忠, 二曰事親以孝, 三曰交友以信, 四曰臨戰無退, 五曰殺生有擇, 若等行之無忽. (『三國史記』卷45, 貴山傳條.)

룡한 장수와 용감한 병졸은 국가의 군사적 기능을 담당한 중요한 인재들이라 할 수 있다. 이 기록은 국가의 정치적인 인물과 군사적인 인물이 화랑에서 나왔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화랑을 노래하고 있는 향가가 충신인 문인을 노래하는 것인지 장수인 무인을 노래하는 것인지를 구별하게 해 주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삼국통일기의 향가에는 양장용졸을 많이 노래하고 있으며, 화랑제도가 일시적으로 폐지된 681년 이후에는 현좌충신을 많이 노래하고 있다. <혜성가>의 배경설화에 나타난 화랑은 훌륭한 장수이며, <모죽지랑가>에 등장한 죽지랑은 문무를 겸비한 화랑이다. 그리고 신라 말기에 지어진 충담사와 월명사의 향가 작품에 관련된 화랑들은 문인이며 충신들이 주로 많이 등장하고 있다.

②는 화랑이 지녀야 할 3가지의 미덕을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남의 뒷자리에 있을만한 사람이 겸손하여 다른 사람의 밑에 앉아 있는 것이고, 둘째는 부자이면서 검소하게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며, 셋째는 원래 권세가이면서 그 위력을 쓰지 아니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화랑이 지닐 수 있는 3가지의 아름다움을 搗謙, 衣儉易, 不用其威을 설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③은 원광법사가 전해준 것으로 화랑들이 실천해야 할 5가지의 계율이다. 첫째는 임금을 충성으로 섬기는 것이요, 둘째는 부모를 효성으로 섬기는 것이요, 셋째는 벼를 신의로써 섬기는 것이요, 넷째는 전장에 나가서 물러서지 않는 것이요, 다섯째는 생물을 죽여도 골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세속오계는 화랑들이 속세에서 수행해야 할 필수적인 덕목이라 할 수 있다. 앞의 세 가지 덕목은 전통사상과 삼교의 정신이 융합된 것이지만 유교적인 도덕이 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臨戰無退는 삼국정립기에 처하여 있는 신라에서는 불가피한 국가적인 덕목이라 할 수 있으며, 殺生有擇은 불교적인 자비라고 할 수 있지만, 화랑의 덕목으로 충효를 바탕으로 하여 살생을 선택하는 것, 臨戰하여서 살생을 선택하는 것으로 신라의 시대적인 요구이고 국가적인 요청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화랑의 세속오계를 살펴보면 文을 중요시여기는 앞의 3가지 덕목과 武를 중요시여기는 뒤의 2가지 덕목으로 나누어진다.

6세기 말에서 7세기까지 지어진 향가 중에서 ①, ②, ③의 덕목을 잘 실천하여 찬양을 받고 있는 화랑은 <모죽지랑가>에 나타난 죽지랑이라 할 수 있다.

Ⅲ. 관련 향가의 분석

6세기 말에서 7세기에 이르는 동안 신라는 화랑제도를 통하여 사상의 갈등과 사회의 혼란을 예방함과 동시에 신라 고유의 문화와 사상을 발전적으로 수용하여 현실에 제기된 문제점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 시기의 신라는 화랑제도를 정착시켜서 사회통합을 이루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능동적으로 확보하고 국력을 결집시켜서 삼국을 통일하고 비약적 성장을 이룩하였다.

이 시기에 지어진 향가로는 <서동요>, <혜성가>, <풍요>, <원왕생가>, <모죽지랑가> 등이 있다. 이 시기에 화랑과 관련된 향가는 <혜성가>와 <모죽지랑가>가 있다. <서동요>는 진평왕대의 작품이지만 서동과 선화공주가 주인공이 된 작품이고, <풍요>는 선덕왕 시대의 작품이지만 백성들이 부역을 하면서 부른 민요이며, <원왕생가>는 문무왕 시대의 작품이지만 광덕과 엄장의 극락왕생을 노래하는 불교적인 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창작되었지만 <서동요>, <풍요>, <원왕생가>는 본고의 논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여기서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창작된 화랑과 관련된 <혜성가>, <모죽지랑가> 등의 향가를 통해서 화랑의 문예미학을 분석하고 그 문맥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혜성가

<혜성가>는 신라 진평왕(579-631) 때에 용천사가 지은 작품으로 비교적 이른 시기에 지어진 향가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화랑의 사회적 인식이 급상승하면서 화랑의 활약이 두드러진 시기라 할 수 있다. 배경설화에 의하면 진평왕 때에 혜성이 나타나자 왜병이 침입하여 국가적인 위기가 초래되었는데, 이때 용천사가 <혜성가>를 불러 국가적인 위기를 모면했다는 기록이 있다.

第五 居烈郎, 第六 實處郎, 第七 寶同郎 등 세 화랑의 무리가 풍악에 유람을 가려는데 혜성이 나타나 심대성을 범했다. 낭도들이 그것을 이상

하게 여겨 여행을 중지하려고 했다. 이때에 천사가 노래를 지어 불렀더니 별의 변괴가 곧 사라졌고, 일본 군병이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니 오히려 경사가 되었다. 대왕이 기뻐하며 화랑들을 보내어 풍악을 유람하게 했다.¹⁷⁾

고대인들에게 혜성은 재앙의 별, 불길한 별로 여겨졌다. 그래서 이 별이 하늘에 나타나게 되면 국운의 쇠퇴나 왕권의 위축이 초래될 것으로 생각하여 그를 퇴치하기 위해 갖가지 행사를 거행하였다. 혜성의 침범과 일본의 군사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혜성이 동남쪽에 그냥 나타났다면 일본에 어떠한 불길한 일이 발생될 것을 암시하나, 혜성이 동남쪽에 나타나 신라를 상징하는 심성을 침범하게 되었다면, 이는 일본군이 침입하여 신라에 재앙이 닥쳐왔음을 암시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때 혜성은 일본의 군사에 비유될 수밖에 없다.¹⁸⁾ 또 동남쪽에 위치한 일본의 군사가 이 혜성의 출현을 빌려서 침략을 해온 것이다. 따라서 혜성의 퇴치는 곧 일본의 군사를 물리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혜성 출현이 있자 용천사는 <혜성가>를 지어서 일본의 군사를 물리쳤다는 기록이 있고, 화랑들은 금강산 행차를 멈추고 일본과의 전쟁에 참여하려는 기록이 있어 주목을 요한다. 그러면 여기에 등장한 第五 居烈郎, 第六 實處郎, 第七 寶同郎 등의 화랑들은 혜성이 나타나자 왜 풍악에 유람을 가는 것을 중지했을까? 화랑의 무리는 평화시에는 현좌충신, 전쟁시에는 양장용졸이 되는 수련단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본의 군사가 신라를 침략했다는 소식에 第五 居烈郎, 第六 實處郎, 第七 寶同郎 등의 화랑은 군사로 출정하기 위해서 금강산에 유람가는 것을 중지했다고 할 수 있다.

『삼국사기』에 나타난 화랑의 기록을 참고로 하여 이들 화랑의 성격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기록에 의하면 화랑은 훌륭한 장수가 되는 화랑과 임금을 잘 보좌하는 충신으로서의 화랑으로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다.¹⁹⁾ 그러므로 이들 세 화랑은 良將勇卒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花郎이라서 일본과 일어난

17) 『三國遺事』卷五, 融天師 彗星歌 眞平大王條.

18) 김승찬, 『향가문학론』, 새문사, 1989, 199면.

19) 賢佐忠臣, 從此而秀, 良將勇卒, 由是而生. (『三國史記』卷4, 眞興王 37年 春條.)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금강산의 유람을 중지했다고 할 수 있다. 양장용졸의 성격을 지닌 화랑이라서 이들은 금강산의 유람을 중지하고 일본병과의 전투를 위해서 출정할 준비를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천문과 歌樂을 담당하는 賢佐忠臣의 花郎인 용천사가 <혜성가>란 향가를 지어 노래부르니 하늘의 혜성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전쟁은 끝이 나고 금강산을 유람하던 화랑은 계속 유람을 하면서 풍류를 즐길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화랑의 사상과 정신을 잘 담고 있는 이 시기의 향가는 <혜성가>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화랑이 산수를 유람하면서 풍류를 닦으며 하늘의 변괴를 물리치는 人天咸悅의 숭고한 정신을 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혜성가>가 <도솔가>와 마찬가지로 천지를 감동시킨 노래라는 것²⁰⁾을 증명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혜성가>의 원문을 통해서 화랑의 문예미학과 그 성격을 살펴보도록 하자.

옛날 동쪽 물가
 乾達婆의 논 城을랑 바라고,
 倭軍도 왔다
 햇불 올린 어여 수플이여.
 세 화랑의 山 보신다는 말씀듣고
 달도 갈라 그어 찾아들려 하는데,
 길 쓸 별 바라고
 혜성이여 하고 사된 사람이 있다.
 아아 달은 떠가 버렸더라
 이에 어울릴 무슨 혜성을 함께 하였습니까.²¹⁾

이 작품의 원문은 향찰식으로 표기²²⁾되어 있는데, 제1행에서 제4행까지는

20) 羅人尙鄉歌者尙矣， 盖詩頌之類歟， 故往往能感動天地鬼神者非一。(『三國遺事』卷五， 月明師兜率歌條.)

21) 김완진, 『향가해독법연구』, 서울대출판부, 1980.

22) 舊理東尸汀叱 / 乾達婆矣遊烏隱城叱朕良望良古 / 倭理叱軍置來叱多 / 烽燒邪隱邊也
 藪也 / 三花矣岳音見賜烏尸聞古 / 月置八切爾數於將來尸波衣 / 道尸掃尸星利望良古
 / 彗星也白反也人是有叱多 / 後句， 達阿羅浮去伊叱等邪 / 此也友物比所音叱彗叱只
 有叱故 / (『三國遺事』卷七， 融天師彗星歌 眞平王代條.)

왜병의 침입과 이에 대응하는 토속신앙의 호국의식이 나타나고 있다. 신라 쪽에서 보면 성지인 ‘건달과가 논 성’을 넘보는 왜군은 심대성을 범하는 혜성과 동일한 것이다. 여기서 ‘건달과의 성’은 신기루의 의미로 쓰여졌음을 알 수 있다. 그 신기루는 선령이 노니는 것으로 관념화되는 환상적 누각으로서 화랑도에서는 성지로 생각하는 곳이지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 신기루가 위치한 곳은 경주에서 동쪽 9리에 있는 화랑도의 성산인 狼山으로 되어 있다. 그 낭산 넘어 동해변에 왜군이 출현했다고 하는 것은 선령이 노니는 낭산의 신기루를 환기해 줌으로써 화랑도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될 수 없었다고 할 수 있다.²³⁾ 용천사는 일본의 어이없는 침입을 알고 일본 침입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이 노래를 지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혜성가>에서는 왜병이 신라의 성지를 넘봄으로써 이미 신라의 왕권을 위협하는 것이며, 혜성이 심대성을 범하는 징조를 보임으로써 왜병이 신라의 성지를 넘볼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제5행에서 제8행까지는 세 화랑과 또 다른 재앙인 혜성이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 화랑이 무리를 이끌고 ‘산 보러 가는’ 것은 화랑도의 遊娛山水라 할 수 있다. 유오산수는 산신과 교감하는 신성참배라고 할 수 있다. 신성제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왜병과 혜성이라면, 이 재앙들을 물리쳐야 할 인물은 절대적 호국의식과 전통신앙의 기저 위에 서 있는 화랑이다. 따라서 현실적 사건인 왜병침입은 호국의식을 지닌 양장용졸의 화랑인 삼화랑으로 해결하고자 하였고, 초현실적인 사건인 혜성출현은 천문과 가악에 능통한 현좌충신의 화랑인 용천사가 천지신명에게 고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다음은 제9행과 제10행을 살펴보기로 한다. <혜성가>의 차사는 시상의 대 전환을 유도하는 장치이다. 차사는 호흡상의 휴지를 두고 앞뒤의 의미적 연관성을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달은 떠가 버렸더라 / 이에 어울릴 무슨 혜성을 함께 하였습니까’하고 詩想을 마무리짓는다. 그러므로 결구는 凶兆를 吉兆로 바꾸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단정하고 있다. 여기서 ‘달’은 원문에 ‘達’로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月의 의미로 해독하는 것은 옳지

23) 김학성, 앞의 책, 154면.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달’을 산으로 해석하고 狼山으로 추정하며, ‘達阿羅’를 ‘산아래’로 해석한 견해가 돋보인다고 할 수 있다.²⁴⁾ 결국 결구는 前句에서 반복된 왜병침입과 혜성출현이라는 재앙을 무시하여 희구하는 세계로 안착하는 세계관적 지평을 열어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혜성가>는 하늘과 땅이 서로 교감하고 있다는 신앙을 바탕으로 한 화랑도의 정신인 풍류와 유람을 바탕으로 人天咸悅과 民物安寧의 경지를 성취하게 하는 숭고한 미의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혜성가>의 설화와 그 작품을 살펴본 결과 이 작품에 등장하는 화랑은 삼화랑과 용천사라고 할 수 있다. 세 화랑이 화랑의 세속오계를 통해서 실천한 내용은 첫번째가 임금을 섬기는 충성스러운 정신(事君以忠)이고, 두 번째가 용맹스런 군인으로 전투에서 물러서지 않는 정신(臨戰無退)이며, 마지막으로 친구간에 신의를 지키는 정신(交友以信) 등의 덕목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삼국사기』를 근거로 하여 살펴볼 때 세 화랑은 통일기를 대비하는 화랑으로 현좌충신이기 보다는 양장용졸의 화랑이며, 용천사는 천문과 가악을 전공하여 향가의 마력을 잘 이해한 현좌충신의 화랑이다. 결국 <혜성가>에는 하늘의 명과 화랑의 정신이 화합하고 일치하는 화랑의 산수유람과 그 풍류정신을 통하여 人天咸悅의 정신을 드러내는 숭고한 미의식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모죽지랑가

이 노래는 삼국통일 전쟁에 참여한 竹旨郎을 사모하는 것으로, 이 시기의 화랑과 관련된 향가의 작품으로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의 창작연대를 선덕왕(632-646) 초기²⁵⁾, 28대 진덕왕대²⁶⁾로 추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계에서는 <모죽지랑가>는 대체로 그 생성연대를 효소왕대 초기²⁷⁾로 본다. 그러나 이 작품의 주인공인 죽지랑은 주로 진덕왕, 태종무열왕, 문무왕 등의 시절에 활약했던 화랑이다. 『삼국사기』에는 신문왕과 효소왕 시절의 죽

24) 김승찬, 『향가문학론』, 새문사, 1989, 참조.

25) 김승찬, 『한국상고문학론』, 새문사, 1987, 116면.

26) 신수직, “모죽지랑가의 창작연대 연구”, 『국어국문학』23호, 국어국문학회, 1961.

27) 윤영옥, 『한국의 고시가』, 문창사, 1995, 220면.

지랑에 대하여는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죽지랑은 젊은 시절에 많은 전공을 세우고 노년을 맞이한 노화랑임을 『삼국사기』의 문맥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²⁸⁾ 그러므로 득오는 전공을 많이 세우고 훌륭한 정치를 한 후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죽지랑을 찬양하는 <모죽지랑가>를 지었다.

죽지랑은 삼국통일기에 통일의 대업을 완수하는 전투에서 대단한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죽지랑은 화랑이면서 주로 眞德, 太宗, 文武王代에 걸쳐 전장의 풍진을 겪으면서 국운을 건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 일에 몸을 바쳤다.²⁹⁾ 다음은 죽지랑의 탄생과 관련있는 설화이다.

이전에 述宗公이 朔州 都督使가 되었다. 장차 任地로 가려하는데, 이때 三韓에 兵亂이 있으므로, 騎兵 삼천명으로 그를 호송했다. 그가 떠나 竹旨領에 이르니 한 居士가 그 고개의 길을 닦고 있었다. 公은 그것을 보고 歎美했으며, 居士 또한 公의 위세가 매우 두드러짐을 좋게 여겨 서로 마음에 감동이 있었다. 公이 州의 治所에 부임한지 한 달이 지나서였다. 꿈에 居士가 방 안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부부가 같은 꿈을 꾸었으므로 더욱 놀라고 괴이하게 여겨 이튿날 사람을 보내어 그 거사의 안부를 물었다. 사람이 ‘거사가 죽은 지 며칠 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 使者가 돌아와서 그 사실을 아뢰었다. 그가 죽은 날짜가 꿈꾸던 그날이었다. 公은 말했다. “아마 거사가 우리 집에 태어날 것 같구려.” 다시 군사를 보내어 竹旨領 위 북쪽 봉우리에 葬事를 지내게 하고 돌로 彌勒佛 한 軀를 새겨 무덤 앞에 두었다. 公의 아내는 꿈꾼 날로부터 胎氣가 있더니 이윽고 아이를 낳았다. 그래서 이름을 竹旨郎라 했던 것이다.

죽지랑은 커서 벼슬하여 庾信公을 따라서 副帥가 되어 삼국을 통일했으며 眞德, 太宗, 文武, 神文의 四代에 걸쳐 宰相이 되어 나라를 안정시켰다. 처음에 得鳥谷이 郎을 사모하여 노래를 지었으니 이렇다.³⁰⁾

위의 기록은 <죽지랑의 출생담> → <모죽지랑가>로 이어지는 삶의 단면을 조명하고 있다. 죽지랑은 그의 전생이 무명거사로서 나라의 난리를 평정하러

28) 박노준, 앞의책, 134면.

29) 박노준, 『신라가요의 연구』, 열화당, 1982, 134면, 참조.

30) 『三國遺事』卷二, 孝昭王代 竹旨郎條.

가는 기병들이 무사히 행군할 수 있도록 죽지령에서 길을 닦고 있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후 그 거사가 죽지령의 부모 술종랑 부부의 꿈에 동시에 나타났으므로, 그리고 술종랑 부인에게 태기가 있어 그의 이름은 무명거사가 길을 닦던 고개인 죽지령의 죽지를 본떠서 죽지령이 되었다고 한다. 그 후에 죽지령은 성장하여 김유신을 도와 삼국을 통일했으며 신라의 재상으로서 그 역할을 다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 기록 앞에는 <득오와 관련된 사건>의 담화가 있으나 너무 길어서 생략하였다. 득오에 관련된 담화의 개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득오와 관련된 사건>은 竹曼郎의 낭도로 있던 得鳥가 益宣의 倉直으로 차출되어 간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이에 죽지령이 익선을 찾아가 득오에게 휴가를 보내줄 것을 요구했는데 익선이 거절했다. 신분상의 차이가 있었지만 익선은 죽지령의 부탁을 거절했다. 지금까지는 죽지령의 부탁을 익선이 거절한 것을 죽지령의 몰락,³¹⁾ 익선의 직무수행의 적법성³²⁾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죽지령이 지닌 인물의 훌륭함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화랑의 덕목에는 공손하고 검소하며 힘을 함부로 쓰지 않는 三美³³⁾가 있음을 이미 설명하였다. 죽지령은 이 三美 중에서도 ‘힘을 함부로 쓰지 않는 덕목’을 잘 실천한 인물로 보아야 한다. 그래야만 이 이야기의 후반부에 나오는 익선의 처벌 문제와 모량리 사람의 처벌 문제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 이 글은 처벌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므로 여기서 이 문제를 접어두고자 한다. 이와 같이 죽지령은 훌륭한 인품을 지닌 화랑이면서 三美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검소하며 힘을 함부로 쓰지 않는 화랑정신의 모범을 보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삼국유사』³⁴⁾에는 ‘죽지령은 커서 벼슬을 하며, 庾信公을 따라서 副帥가 되어 삼국을 통일했으며 眞德, 太宗, 文武, 神文의 四代에 걸쳐 宰相이 되어 나라를 안정시켰다’고 하고 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죽지령은 삼국통일기에

31) 박노준, 앞의 책, 135-137면.

32) 이웅재, “신라향가의 사회성 연구”, 중앙대대학원(박사), 1988.

33) 郎曰, 臣見有美行者三. 王曰, 請聞其說. 郎曰, 有人爲人上者, 而撝謙坐於人下, 其一也. 有人豪富, 而衣儉易, 其二也. 有人本貴勢, 而不用其威者, 三也.(『三國遺事』卷二, 景文王條.)

34) 三國遺事, 『孝昭王代竹旨郎』條, 참조.

전공을 많이 세운 화랑으로, 賢佐忠臣의 역할도 잘 수행했지만 良將勇卒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문무를 겸비한 화랑임을 알 수 있다. 죽지랑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시기에 활약했으므로 전투에서 전공을 많이 세우고 그 후에는 조정에서 재상이 되어 나라를 안정시켰다. 그러므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던 당시에 죽지랑은 전투에 참여하는 문인이면서 무인의 역할을 다한 훌륭한 화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득오는 위협에 처한 자기를 구원해준 문무를 겸비한 죽지랑을 잊지 못해서 찬양하는 <모죽지랑가>를 지었다.

간 봄 그리매
 모든 것사 울어 시름하는데
 아름다움 나타내신
 얼굴이 주름살을 지니려 하옵내다
 눈 돌이킬 사이에 나마
 만나 뵈도록 지으리이다
 郎이여 그릴 마음의 녀올 길이
 다복쑥 우거진 마을에 잘 밤이 있으리이까³⁵⁾

이 노래의 원문은 향찰로 표기³⁶⁾되어 있는데, 제1행과 제2행은 詩想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 부분은 젊은 봄날의 화랑시절을 회상하면서 모든 것의 눈물을 동반한 시름을 노래하고 있다. 제3행과 제4행은 아름다움의 지속과 그것의 파괴 사이에서 극도로 긴장되어 있는 화자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다. 제5행과 제6행은 눈 깜빡할 사이에 죽지랑을 만나보고자 한다. 여기에 오면 득오는 죽지랑을 사모하는 마음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득오는 죽지랑이 연로하여 곧 피안으로 가버릴 것을 너무나 잘 알았다. 그래서 득오는 죽지랑이 피안으로 가기 이전에 한 번이라도 만나 보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이 작품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삶이란 그 자체가 순간

35) 양주동, 『고가연구』, 박문출판사, 1957.

36) 去隱春皆理米 / 毛冬居叱沙哭屋尸以憂音 / 阿冬音乃叱好支賜烏隱 / 兒史年數就音墮
 支行齊 / 目煙廻於尸七史伊衣 / 逢烏支惡支作乎下是 / 郎也慕理尸心未 行乎尸道尸
 / 蓬次叱巷中宿尸也音有叱下是 // (『三國遺事』卷二, 孝昭王代 竹旨郎條.)

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인간의 무상함을 드러내고 있다.³⁷⁾ 제7행과 제8행은 사모하는 화량을 頓呼하여 화자의 심경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시적 화자는 죽지랴를 그리움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그리워하는 주체를 만나기 위하여서는 ‘다복쭉 우거진 마을’의 어려움도 겪어나가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모죽지랴가>에 나타난 ‘다복쭉’의 의미는 『시경』의 <소아(륙아)>에 등장하는 ‘다복쭉’과 ‘제비쭉’의 의미와 서로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길고 큰 아름다운 쭉이라 여겼더니
아름다운 쭉이 아니라 저 다복쭉이로구나
슬프고 슬프다, 父母여
나를 낳으시느라 몹시 수고하셨도다

길고 큰 아름다운 쭉이라 여겼더니
아름다운 쭉이 아니라 저 제비쭉이로다
슬프고 슬프다, 父母여
나를 낳으시느라 몹시 수고롭고 병드셨도다

『시경』의 <소아(륙아)> 제1-2장³⁸⁾

위의 시의 창작동기는 사람들이 수고로움이 심하여 효자도 봉양을 끝까지 마치지 못하여 이 시를 지었다고 한다. 여기서 ‘다복쭉’과 ‘제비쭉’은 ‘아름다운 쭉’과 대비되고 있다. ‘아름다운 쭉’이 백성들이 편안하여 부모를 잘 공경함에 비유된다면, ‘다복쭉’과 ‘제비쭉’은 백성들이 수고로와 부모를 잘 봉양하지 못함을 비유하고 있다. 『시경』에 나타난 ‘다복쭉’의 의미와 마찬가지로 <모죽지랴가>의 ‘다복쭉’은 현실생활에 어렵고 수고로운 백성들이 모여있는 속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모죽지랴가>의 ‘다복쭉 우거진 마을’은 世俗 迷路가 판치는 마을이며, 어려운 백성들이 모여서 세속의 삶을 살아가는 마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세상은 죽지랴와 같은 선한 인물과 익선과 같은 악한 인물이 공존하는 속세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 득오

37) 윤영옥, 『한국의 고시가』, 문창사, 1995, 218면.

38) 蓼蓼者莪, 匪莪伊蒿, 哀哀父母, 生我劬勞. 蓼蓼者莪, 匪莪伊蔚, 哀哀父母, 生我勞瘁. 『詩經』, <小雅(蓼莪)>, 第1-2章.

는 죽지랑을 彌勒化生的 인물로 관념화하고 있으며, 탐욕적인 익선을 통해 세속적인 인간상을 그렸고, 자신을 구해준 죽지랑을 통해서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그렸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득오는 죽지랑을 경건한 마음으로 숭앙하여 찬양한 것만이 아니고, 현세에서 경험해야 할 인간의 비극적 현실을 인식하면서 화랑의 덕목을 잘 실천한 죽지랑을 향가 작품으로 노래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죽지랑가>에 나타난 죽지랑은 만년의 노화랑으로 화랑의 덕목을 잘 실천하여, 당시의 사람들이 미륵의 화신으로 생각할 정도로 원숙하고 동정적인 인간주의자로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였다.

지금까지 <모죽지랑가>의 설화와 그 작품을 살펴본 결과 이 작품에 등장하는 화랑은 죽지랑과 득오라고 할 수 있다. 죽지랑은 통일 전쟁을 수행할 당시에는 현좌충신과 양장용졸을 잘 겸비한 화랑으로 보이며, 효소왕대 득오는 삼국통일이 끝난 뒤 죽지랑의 휘하에서 향가를 부르는 가악을 전공한 화랑으로 보인다. 득오는 노년의 죽지랑이 화랑의 실천 덕목인 三美, 즉 撝謙, 衣儉易, 不用其威 등을 잘 수행한 인물이라는 확신이 서서 <모죽지랑가>를 지었고, 앞으로 죽지랑과 같은 훌륭한 화랑이 계속 나타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죽지랑을 숭상하고 찬양하는 이 작품을 지었다고 할 수 있다.

IV. 결론

지금까지 6세기 말에서 7세기까지 창작된 화랑과 관련된 향가의 문예미학을 살펴보았다. 6세기 말에서 7세기는 신라가 화랑제도를 바탕으로 삼국을 통일한 시기라 할 수 있으며, 화랑제도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진흥왕 37년(576)부터 화랑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된 신문왕 원년(681)까지의 기간을 포함하고 있다. 6세기 말에서 7세기까지의 향가 중에서 화랑과 관련된 노래는 <혜성가>와 <모죽지랑가>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화랑의 문예미학은 화랑의 수행방법과 그 실천덕목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었다. 화랑은 하늘의 天神, 龍神, 山神 등을 섬기며, 道義를 연마하고, 歌樂을 즐기며, 山水를 유람하면서 풍류를 즐겼으며 人天咸悅(龍天歡悅), 民物安寧, 接化群生을 목표로 두었으니, 이는 화랑의 문예미학이며 그 사상이라 할 수

있다. 또 화랑의 문예미학은 향가를 비롯한 당시의 문학작품에 수용되어 있는 三美(摛謙, 儉易, 不用其威)와 世俗五戒(事君以忠, 事親以孝, 交友以信, 臨戰無退, 殺生有擇) 등을 실천하는 훌륭한 화랑을 찬양하는 가운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화랑들이 명산대천을 찾아 풍류와 유람을 즐긴 이유는 신라의 전통사상인 山神과 龍神 그리고 天神을 신봉하고 유, 불, 선 3교의 교리를 익혀서 인간을 교화하는 화랑도의 정신을 맹세하고 다짐하는 것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사선의 유오지와 풍류도장을 통해서 살펴볼 때, 화랑들은 명산대천을 遊娛하면서 歌樂을 즐기고 道義를 서로 갈고 닦으며 지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화랑들이 가악을 즐길 때 자연스럽게 향가도 함께 불려졌음을 추측할 수 있다.

삼국통일기의 향가에는 양장용졸을 많이 노래하고 있으며, 화랑제도가 일시적으로 폐지된 681년 이후에는 현좌충신을 많이 노래하고 있다. 즉, <혜성가>의 배경설화에 나타난 화랑들은 훌륭한 장수이며, <모죽지랑가>에 등장한 죽지랑은 문무를 겸비한 화랑이다. 그래서 신라 말기에 지어진 충담사와 월명사의 향가 작품에 관련된 화랑들은 문인이며 충신들이 주로 많이 등장하고 있어 서로 대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혜성가>에 등장하는 화랑은 삼화랑과 용천사라고 할 수 있다. 삼화랑은 통일기를 대비하는 현좌충신보다는 양장용졸의 화랑임을 살펴보았으며, 용천사는 천문과 가악을 전공한 현좌충신의 화랑임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혜성가>에는 화랑들이 유오산수하는 가운데 드러나는 화랑의 문예미학인 풍류와 유람정신을 바탕으로 人天咸悅과 民物安寧의 경지를 성취하게 하는 숭고한 미의식을 담고 있다.

<모죽지랑가>에 등장하는 화랑은 죽지랑과 득오라고 할 수 있다. 죽지랑은 통일 전쟁을 수행하고 나라에 큰 벼슬을 했으므로 현좌충신과 양장용졸을 겸비했던 화랑이며, 득오는 죽지랑의 휘하에 있다가 삼국통일이 끝나자 가악을 전공한 화랑으로 보인다. 득오는 죽지랑이 화랑의 세속오계와 三美 등의 실천덕목을 잘 수행한 인물이라는 확신이 서서 그를 찬양하는 <모죽지랑가>를 지었다. 이 향가는 죽지랑으로 대표되는 화랑세력의 변화와 함께 기울기 시작하는 화랑정신의 회복을 암시적으로 표현하며 화랑을 찬양하는 우아한 미

의식을 담고 있다.

<혜성가>, <모죽지랑가> 등에 등장하는 화랑은 전쟁에 참여한 화랑이 상대적으로 많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화랑은 <혜성가>에 등장한 용천사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모죽지랑가>에는 통일기의 화랑인 죽지랑을 통해 쇠퇴하는 화랑의 모습을 아쉬워하고 있다. 삼국통일기를 전후한 향가에는 화랑들의 놀이적 기능을 강조하기보다는 군사적 기능을 잘 수행한 화랑의 모습을 많이 노래하고 있다. 또, 문학적인 측면에서 <혜성가>, <모죽지랑가> 등은 人天咸悅, 民物安寧, 接化群生하는 화랑의 사상을 담고 있으며, 각각 풍류와 유람 그리고, 실천과 찬양의 문예미학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본고에서 논의한 화랑의 문예미학은 시론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화랑의 성격이 명확하게 규명될 때 화랑의 문예미학은 더욱 정확하게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신라말기에 창작된 화랑과 관련된 향가인 <도솔가>, <제망매가>, <안민가>, <찬기과랑가> 등에 나타난 화랑의 사상과 그 정신을 연구하는 작업은 더욱 입체적으로 향가에 나타난 화랑의 문예미학을 분석하는 일이 될 것이다.

[참고 문헌]

『삼국유사』

『삼국사기』

『화랑세기』

김동욱, 『한국가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61.

김문태, 『삼국유사의 서사문맥 연구』, 태학사, 1995.

김사엽, 『향가의 문학적 연구』, 계명대출판부, 1979.

김승찬, 『한국상고문학연구』, 새문사, 1987.

김열규 외, 『향가의 어문학적 연구』,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1972.

김영태, 『신라불교연구』, 민족문화사, 1987.

김완진, 『향가해독법연구』, 서울대출판부, 1981.

김운학, 『신라불교문학연구』, 현암사, 1977.

김종우, 『향가문학연구』, 이우출판사, 1980.

김준영, 『향가문학』, 형설출판사, 1981.

- 김학성, 『한국고시가의 거시적 탐구』, 집문당, 1997.
나경수, 『향가문학론과 작품연구』, 집문당, 1995.
박노준, 『신라가요의 연구』, 열화당, 1982.
양주동, 『고가연구』, 박문출판사, 1957.
윤영옥, 『신라시가의 연구』, 형설출판사, 1981.
이웅재, 『향가에 나타난 서민의식』, 백문사, 1990.
이임수, “모죽지랑가를 다시 봄”, 『문학과 언어』제3집, 1982.
임기중, 『신라가요와 기술물의 연구』, 이우출판사, 1981.
장진호, 『신라향가의 연구』, 형설출판사, 1993.
최철, 『신라가요연구』, 개문사, 1979.

[ABSTRACT]

**The Aesthetics of the Literature of Hwa-Rang
in <Hyesung-Ga> and <Mojukjirang-Ga>**

Ryoo, Hae-choon

This thesis is focused on the character of the Hyang-Ga in the first period of the Hwa-Rang's system. Two works, Hyesung-Ga and Mojukjirang-Ga had evolved into the first period of Hyang-Ga whose main authors were Hwa-Rang. Based on this assumption, this thesis aims to reveal the aspects of two works in terms of its origin, authors, view on the world, and social function.

Hyesung-Ga, written by Yungchun-Sa was to dispel disasters as Japanese invasions and comets respectively emerged as threatening forces against holy places of traditional belief and royal powers, the basic spirit of Hwa-Rang.

Mojukjirang-Ga expressed the personal lyricism in the Hwa-Rang's spirit of praising noble personality and their view about life.

However, the worship of mountain spirits and adoration of the motherland can be boiled down to practicalism, the essence of Hwa-Rang. Hyang-Ga was functioned as a channel connecting man and god where supernatural problems arise. Hyang-Ga in the first period of the Hwa-Rang's system had connected practicalism and personal lyricism. This discussion attempted to see the practicalism and personal lyricism in Hyang-Ga. Therefore more studies which is not identified in this thesis are in the future.